

일제시대 일본의 제주 조사 연구

김동전(제주대)

1. 머리말

지난 2010년 5월에 개최된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공동주제는 ‘식민주의와 식민책임’이었다. 20여 학회의 개별 주제발표에서 한국사연구회에서는 ‘일본인의 식민지 조선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는 ‘일제하 조선민족의 지속과 변동’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20세기 전반 제주지역 민중생활사 자료조사와 특징: 泉靖一과 高橋昇의 자료조사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바가 있다.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제주 조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바가 있다. 일제시기 일제에 의한 조선조사 활동이 조선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제주지역에서는 그들의 조사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조사가 제주지역에서의 식민지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 등이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역에 대한 정보 확보는 통치의 효율성 및 식민지역에 대한 수탈의 용이성을 위해 중요하였다. 특히, 식민지역에 대한 지리·역사·사회·문화·풍속·인류학적 조사는 식민지역에 대한 일차적 정보 확보를 위해 더욱 중요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별 조사 및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본의 통치기구나 일인 학자들이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泉靖一과 高橋昇 조사 내용은 생략하였다.

2. 일본 통치기구의 제주조사 활동

석주명의 조사에 의하면, 20세기 전반 제주도에 대한 국내·일본 학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20세기 전반 제주도 관련 연구 개요¹⁾

구분 시기	제주도 관계 단행본	제주도 관계 논문	제주도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단행본	제주도에 대해 언급한 논문	계
1900년대	1	3	1	1	6
1910년대	1	17	-	2	20
1920년대	7	45	-	2	54
1930년대	8	34	1	16	59
1940년대	4	20	2	4	30
계	21	119	4	25	169

주로 1910년에서 193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고, 전쟁 준비 및 전쟁이 진행되었던 1940년대

1) 석주명, 『제주도관계문헌집』(1949)에서 재정리하였음.

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여기에는 석주명 본인을 포함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내용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제의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제주도청(濟州島廳), 목포상업회의소, 부산상공회, 철도국, 농사시험장, 수산시험장 혹은 조선총독부 축탁 관리에 의해 제주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 일차적 목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식민지 경영을 통한 제주도 개발이었다.

<표 2> 일본 통치기구의 제주 조사 및 연구의 주요 내용

조사 시기	조사기관	조사내용	비고
1905	靑柳綱太郎	제주도안내(1905)	
1913	木浦商業會議所	제주도 개황(1913)	
1914	朝鮮敎育會	제주도 풍속(1914)	
1915	朝鮮彙報	제주도 풍속(1915)	
1924	全羅南道濟州島廳	未開の寶庫 濟州島(1924)	
1925	朝鮮總督府	濟州島山地及別刀港灣調査報告書(1925)	
1926	조선문조선	제주성내전경, 성산포전경, 서귀천지폭포(1926)	
1927	鮮滿研究協會	조선각도읍의 경제(1927, 제주편 수록)	
1928	경찰부장, 조선총독부 축탁 이마무라 도모(今村靱)	우마(1928), 蛇窟(1928), 전복(1928), 癩病(1928), 한라산(1931), 제주도를 말한다(1942)	法政大學
1929	朝鮮總督府 축탁 善生永助	生活狀態調査, 其2 濟州島(1929)	
1930	釜山商工會	제주도 경제(1930)	
1932	朝鮮總督府水産試驗場	朝鮮近海海洋圖(1932)	
1935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1935)	
1936	조선총독부 철도국	한라산, 해녀, 우도(1936)	
1937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1937)	
1937	전라남도	제주도 개발계획 개요	
1937	朝鮮總督府 축탁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부락제(1937), 釋奠·祠雨·安宅(1937)	동경제국대학 사회학
1938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공업용수 조사(제4보) 제주도 수자원조사 개요	
1939	전라남도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1939)	
1939	조선 농사시험장: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	朝鮮半島の農法과 農民 -濟州島편	
1939	朝鮮總督府 수산시험장	제주도 魚類相	內田恵太郎, 矢部博
194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 제주편 수록)	
1944	朝鮮總督官房地方課	(朝鮮行政)區劃便覽(1944, 제주편 수록)	

일제는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나갔다. 아오야기[靑柳綱太郎]의 제주도안내(1905)는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아오야기는 일본제국주의 침략 선봉자로 조선총독부의 관리였고, 책을 편찬한 동경 육문관은 만주, 시베리아 등 일본의 식민지 팽창

지역에 대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편찬했던 곳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안내(1905)는 일본의 제주지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제주도는 '일본의 식민지 중 중요한 부원(富源)이며, 이 부원개발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 일본의 경제적 팽창에 기여해야 한다'는 서문의 내용에서도 그 편찬의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특히, 아오야기[青柳綱太郎]는 1905년 3월 목포신문(木浦新聞)에 '대제주경영(對濟州經營)'이라는 글을 통해 일제의 제주도경영 방침을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첫째는 교통경영으로 제주도의 특산물을 수송할 수륙교통사업으로 제주와 일본의 새로운 직항 항로의 개설을 촉구하였다. 일본인들이 제주에 진출하여 잡화점포의 확대를 통한 일본 상품의 판매, 감태를 이용한 옥도(沃度) 제조사업은 제주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유망 업종으로 거론하였다. 둘째, 제주도 연안의 풍부한 자원 수탈을 위해 일본 어민의 제주도 이주 경영을 지적하여, 일본인 이주어촌의 건설을 촉구하였다. 셋째, 농업적 경영으로 장래가 유망한 산업으로 목축 산업을 지적하였다. 목축의 일본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목축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지역을 일본의 목축 공급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10년대는 목포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개황(1913)을 통해 제주도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였고, 조선교육회라든가 조선회보를 통해 제주도 풍속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도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1920년대의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 제주도청에서 발간한 未開の寶庫 濟州島(1924)이다. 제주도의 전설과 신화·풍속·교통·통신·교육·종교의 상황을 통해 제주를 이해하고, 축산·임업·양잠·면화·수산·어업 등의 개요를 기술하여 이를 일본에 알림으로써 자본가를 대대적으로 영입하여 미개의 대보고인 제주도를 개척하자는 취지였다.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침을 흘리게 하는 보고로 ①소·말·돼지가 10여 만 마리인데, 이를 이용한 육제품가공업 ②어족의 섬으로 패류나 해초류가 무한하게 번식할 수 있는 어장 ③넓은 삼림지를 소유하고 있어 임업 경영에 가장 적지 ④한라산 중턱의 광대한 산림을 이용한 표고재배업에 가장 유망 ⑤어류·패류의 통조림업, 옥도제조업, 멸치박(粕)공장 조개단추공장 ⑥감귤재배지로서의 최적지 ⑦양잠·약용작물 재배지로서의 최적지 ⑧양계(養鷄)·양봉(養蜂) 산업의 최적지로 이 유망한 자원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1924년 당시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각 방면에 걸친 계획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산업의 대개발 : 유한지를 이용한 목축과 임업 대경영, 면작(棉作)의 대대적인 보급 단행, 감귤원 조성 적극 장려, 표고버섯 재배 장려, 개량양계를 장려하고 계란반출조합을 설치하여 부산에 출장소 설립하였음, 이주어민의 장려, 수산물의 가공무역품 제조를 장려하고 대 중국무역을 지도할 것.

②어항(漁港)의 대수축 : 제1기 계획으로 제주항(일명 산지항), 성산포항, 서귀포항 개발을 위해 항만기성동맹회를 설립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하고 있음

③전기공업의 기획 : 제주성내에 화력에 의한 전등회사를 세우기 위해 주식회사를 창립하여 공사 착수 예정, 60가구 이상의 전화가설 신청, 3~4개소의 폭포를 이용한 전력으로 공업에 활용

④수도의 계획 : 제주도민의 음료수 개선을 위해 2개소의 간이수도 부설(제주성내, 서귀포)

⑤도로의 대개수 단행 : 일주도로, 대정(지금의 평화로), 정의(지금의 번영로)로 통하는 도로의 대개수를 단행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에 의한 교통의 대혁신 실행

⑥교통통신에 관한 계획 : 무선전신국 제주성내 부근에 설립

⑦이민과 출가(出稼)에 대한 계획 : 도외로부터의 제주도이민을 장려하고 중간부락의 조성
과 이주어촌의 조성을 장려할 것, 제주도민의 일본농노시장 진출을 통해 제주도 경제에 기
여하게 할 것, 해녀들의 출가 장려 정책 마련

한편 조선총독부 촉탁 善生永助의 '생활상태조사(其2 제주도)'는 1927~1929년까지 조선총
독부 직원의 출장조사와 전라남도 제주도청이 제공한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제주도 경제사정으로 지세와 지리, 물산, 교통, 행정, 토지, 인구, 농업, 축산,
임업, 수산, 공업, 노동, 상업, 재정, 금융 ②부락에서는 부락의 구성, 시가지, 모범부락과 우
량부락, 이본인 이주어촌, 공동단결 ③생활에서는 복장, 식사, 주택, 유흥과 낭비, 등화와 연
료, 관혼상제 ④문화에서는 풍속, 민심, 교육, 신앙, 선거, 범죄, 위생 ⑤생계에서는 빈부의
정도, 농가의 수지, 농가생계상태 등 아주 자세한 통계수치들을 제시하여 제주도 생활상태를
조사하였다. 그 목적은 善生永助 자신이 총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출신 노동자의 일본
진출(오사카, 고베)로 무역 등 일본과의 경제적 교섭이 매우 밀접하여 제주도 조사가 매우
중요시되었다는 것이다.²⁾

1930년대는 '제주도세요람'(1935, 1937, 1939) 발간이 주목된다. ①총설 : 연혁, 지세, 위치
및 너비, 행정구역, 기상, 호구(읍면, 직업별, 일본인 등), 인정풍속, 도민의 출가(일본 도항자
비교표 등 재일제주인에 대한 실태 조사, 해녀 출가), 토지 ②교통과 통신 : 도로, 항만(제주,
한림, 서귀, 성산, 추자항), 해륙교통, 지방도로, 화물자동차 운행상황, 통신(1902 제주우편취
급소, 1925년 제주와 목포간 무전 설치 개국 ③위생 : 의료기관, 전염병, 상수도 ④사회사업
: 국민정신총동원 제주도연맹-중일전쟁 1주년을 기념하여 1938년 제주도연맹 결성. 읍연맹
1, 면연맹 12, 부락연맹 228, 애국반 3,299, 반원 48,900명, 이에 가맹한 단체 383개이다. 교화
단체연합회(42개 단체 가입), 제주도공제회(1935년 12월 5일에 도민의 구제, 교화 등 기타 사
회사업을 목적으로 구 제주도공제회를 해체하고 새로 조직), 제주도연합청년단(1938년 2월
11일 제주도내 각읍면에 1개씩 13개 단위청년단 조직, 2월 20일에 이를 통합한 연합청년단
발족, 1938년 4월 30일에 신창청년단 조직, 가입), 농산어촌진흥운동의 개황, 구휼자선 ⑤교
육 : 교육기관, 학교일람표, 종립생 지도 ⑥종교 ⑦농업⑧축산 : 축산현황, 공동목장의 정리
⑨상공업 및 무역 ⑩임업 ⑪수산: 어선어구의 개량장려, 판매, 어업조합 ⑫재정 및 금융경제
: 읍면재정, 학교재정, 농회, 향교재산, 도민경제,⑬명승고적 ⑭도일주 안내 : 연도시찰자료 -
인구 및 각 읍면별 보고 자료 내용 요약, 특이사항 등

1937년의 제주도개발계획개요는 제주도 자체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에 조선총독부 직원의
조사 결과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일부 수정한 것으로 10개년 예정 계획이다. ①조선
총독부 담당 내용 : 시설사업(농사시험장 지장, 종양장, 세균검사소, 농경저리자금 및 농량대
부), 보조사업으로 무수주정 원료 고구마 증산, 축산(면양 및 젖소 수입, 면양목장, 급수장
설치, 축우장려 기술원 배치, 양돈 장려), 방풍리 조성, 방사림(도로 개량 개수공사, 항만 수
축공사, 지하수 조사, 상수도 부설공사, 마을 음료수 설치공사) ②전라남도 제주도 담당 사
항 : 시설사항(고구마 증산 기술원 배치, 메밀 증산, 면양·축우·양돈 기술원 배치, 방풍
림·방사림 설치, 지하수 조사, 수산 시험조사, 간이축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특용작물증
산(맥주맥, 박하, 그린피스, 제충국 증산), 축산(양, 돼지, 축우 기술원 배치 및 급수장 설치),
토목(상수도 부설공사, 마을 음료수 공사) ③개발회사 담당 :직영사업(무수주정 제조, 면양목
장 경영, 젖소 목장 경영, 이민사업, 전기사업), 예탁사업(면양사육, 젖소 사육) 등 이다.

2) 지리·동물·식물·민속 연구는 전문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소략하게 다
루고 있다.

1938년의 제주도 수자원조사 개보는 1937년 9월부터 10월에 제주도 각 지형 및 지질 구조를 답사하여 수자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지하수 약 60개소로부터 채취한 각종의 물은 향후 화학적 성분을 밝혀서 향후 개발 계획 자료로 축적한다는 방침이었다.

3. 일인 학자의 제주 연구 및 조사 활동

일제 통치기구의 제주 조사 활동과 함께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제주지역 연구 및 조사 활동도 이루어졌다. 순수한 학문적 활동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일인 학자의 제주 연구 및 조사 내용

시기	연구자	주요 내용
1906	市河三喜	제주도곤충(1906)
1911	吉田英三郎	朝鮮誌(1911, 제주 수록)
1911	大野秋月	남선의 보물 제주도
1913	小倉進平	전설(1913)
1913	中井猛之進	제주도와 완도식물조사보고서(1914), 조선총독부
1915	江口保孝	출가해녀(1915)
1920	小田幹治郎	삼성혈 고사(1920)
1924	小倉進平	제주도 방언(1924)
1924	鳥居龍藏	민족학상의 제주도(1924)
1925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刻治郎)	지나간 날의 제주도(1925)
1926	前田生	해녀생활(1926)
1928	森爲三	제주도 식물분포(1928)
1928	原口	제주도 봉수(1928)
1928	무카에 켄고(向江太吾)	제주도 추억(1928)
1928	모리(森生)	濟州島 漫談(1928)
1928	마에다 겐지(前田善次)	제주도(1928)
1930	아베 요시시게(安倍 能成)	耽羅漫筆(1930), 어제와 오늘(1930)
1930	세키노 타다시(關野 雄)	제주도 유적(1930)
1930	아사미 린타로	서복의 석벽문자(1930)
1930	운노 엔페이(海野 淵平)	하멜(1930)
1930	미즈키 도라오(水城 寅雄)	제주도 사람과 마을(1930)
1930	추루다 고로오(鶴田 吾郎)	자연과 풍물(1930)
1930	아카마츠 지조(赤松 智城)	俗信雜記(1930, 40)
1931	나카야마 시게루(中山 番)	말(馬, 1931)
1931	梶田一二	제주도 지리연구, 해녀(1933)
1932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蛇鬼신앙(1932), 민속(1941, 1942),
1933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민요와 여성(1933)
1933	先生永助	모범부락(1933)
1933	다구치 데이키(田口禎熹)	해녀(1933)
1933	田口禎熹	제주도 해녀(1933)
1935	小浜基次, 佐藤正良	제주도 원주민 체질인류학
1936	鎌田白堂	조선의 인물과 사업(1936, 제주편 수록)
1936	紫陽三郎	제주도 해녀(1936)

1940	도리야마 스스무(鳥山 進)	제주도 현지조사(1940)
1942	우에다 츠네히치(上田常一)	해중식물(1942)
1942	마즈시마 유즈루(水島謙)	제주도 일주(1942)
1942	이이야마 다츠오(飯山達雄)	한라산 등산(1942)
1942	다치이와 이와오(立岩巖)	지질(1942)
1942	難波專太郎	해녀(1942)
1942	飯山達雄	제주도 등산(1941)
1942	다케나카 가나메(竹中要)	식물(1942)
1942	모리 타메조(森爲三)	육상식물(1942)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10년대는 中井猛之進의 제주도 식물조사, 슈우게츠[大野秋月]小倉進平의 제주도 전설, 슈우게츠[大野秋月]의 ‘남선의 보물 제주도’, 江口保孝의 제주도 해녀의 출가(1915) 등이다. ‘남선의 보물 제주도’는 슈우게츠[大野秋月]가 1910년부터 1911년까지 1년 반동안 제주도를 실제 조사하여 견문한 바를 지세와 연혁, 풍속, 산천, 부속도서와 특산물, 명승, 고적, 학교, 관아 항목으로 기술하고, 1910년의 제주도 상황을 인구, 통신기구, 금융기관, 오일시장, 제주도 산업의 생삼품과 생산액, 반출입품 비교표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식물, 곤충, 전설, 해녀 등의 관심은 1920년대에 와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小田幹治郎의 삼성혈 고사(1920), 小倉進平의 제주도 방언(1924), 鳥居龍藏의 민족학상의 제주도(1924), 前田生の 해녀생활(1926), 森爲三의 제주도 식물분포(1928), 原口 제주도 봉수(1928), 마에다 겐지(前田善次)의 제주도(1928), 横山又次郎의 其化石, 岡本半次郎의 昆蟲相 등 이다. 도리이 류우조(鳥居龍藏)³⁾의 ‘민족학상으로 본 제주도’는 1924년 제주도를 조사한 내용으로 인류학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으로 신체의 측정, 과거 민족의 유적, 풍속, 관습 등이다.

1930년대는 세키노 타다시(關野 雄)의 제주도 유적(1930), 아사미 린타로의 서복의 석벽문자(1930), 운노 엔페이(海野 淵平)의 하멜표류(1930), 미즈키 도라오(水城 寅雄)의 제주도 사람과 마을(1930), 추루다 고로오(鶴田 吾郎)의 제주 자연과 풍물(1930), 아카마츠 지조(赤松 智城)의 제주 俗信雜記(1930, 40), 나카야마 시게루(中山 番)의 말(馬, 1931), 梶田一二의 제주도 지리연구, 해녀(1933),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蛇鬼 신앙(1932), 민속(1941, 1942),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민요와 여성(1933), 先生永助의 모범부락(1933), 다구치 데이키(田口禎 熹)의 제주도 해녀(1933) 小浜基次, 佐藤正良의 제주도 원주민 체질인류학, 紫陽三郎의 제주도 해녀(1936).

동경문리과대학 지리학교실 조교수 마수다 이치지(梶田一二)의 ‘제주도의 지리적 연구’는 1930년 8월부터 1937년까지 제주도를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주도의 지형, 농업, 축산업, 임업, 출가해녀, 오사카로의 진출, 제주도의 취락과 구조 등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제주도상황을 정리하였다.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의 ‘濟州島民族誌’(1936, 1937년 조사내용),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의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에서 제주도 관련자료(1939년 조사내용)는 매우 중하다. ‘濟州島民族誌’는 모두 6장으로 제주도의 자연환경, 촌락, 가족, 초가족(超家族) 집단, 종교, 민구류를 다루고 있다. 다카하시 노보루(高橋 昇)⁴⁾의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은 다카하시 노보

3) 도리이 류우조(鳥居龍藏, 1872-1953)는 인류학자, 고고학자로 동경대학, 상지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중국, 시베리아, 사할리, 남아프리카 등지의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을 연구하였는데, 1924년 중반에 제주도를 조사한 내용이다.

루가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사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조선 팔도를 다니며 농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농업생활사 관련 자료이다. 그는 주로 당시 농민들이 농사짓던 방식부터, 무엇을 어떻게 먹고 땅값이나 농산물·농기구의 값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했다. 직접 조사한 내용인 만큼 당시 실정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기록이다.⁴⁾ 조선 농법을 조사한 근본적인 목적은 식량 증산에 있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 따른 식량위기와 전쟁 준비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제주지역의 조사는 1939년 5월 20일~6월 3일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40년대는 도리야마 스스무(鳥山 進)의 제주도 현지조사(1940), 우에다 츠네이치(上田 常一)의 해중식물(1942), 다치이와 이와오(立岩 巖)의 제주도 지질(1942), 그리고 문화조선지의 제주도 특집호 관련 논문이 주목된다.

4.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제주 조사 연구

- 1) 동경문리과대학 지리학교실 조교수 梶田一二, 「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1~ 『木浦新報』, 昭和9年(1934. 10. 06.)
- 2) 森山實治(濟州島公立農業實修校), 「濟州島の石垣は 緬羊の放牧最適」 『木浦新報』1938. 2. 16.
- 3) 今井信永, 「海にも陸にも大寶庫を有する 濟州島視察(二)」 『釜山日報』, 1928. 7. 7.
- 4) 向江生, 「濟州島の傳説 - 三姓穴に絡る神話」 『京城日報』, 1928. 7. 31.
- 5) 田中 翠芳, 「時の力と濟州道(一) - 朝郵獨占の木浦濟州航路 大人氣の <海州丸>」 『木浦新報』, 1929. 5. 22.
- 6) 田中 翠芳, 「時の力と濟州道(二) - 泣く泣く島民は 天魔の惡戯か 此の大旱害の慘狀」 『木浦新報』, 1929. 5. 23.
- 7) 田中 翠芳, 「時の力と濟州道(三) - 一周道路に二筋のレール 根強い循環軌道會社」 『木浦新報』, 1929. 5. 25.
- 8) 田中 翠芳, 「時の力と濟州道(四) - 濟州道の玄關口 山地港の築港 第二期工事の計劃」 『木浦新報』, 1929. 5. 26.
- 9) 田中 翠芳, 「時の力と濟州道(五) - 互に秘術を盡し 巨巴の大競争 濟州内地間航路の現況」 『木浦新報』, 1929. 5. 28.
- 10) 金斗奉, 「(傳説의 濟州道) 星主王子傳(一)」 『東亞日報』, 1929. 12. 21.
- 11) 金斗奉, 「(傳説의 濟州道) 星主王子傳(二)」 『東亞日報』, 1929. 12. 25.
- 12) 金斗奉, 「(傳説의 濟州道) 星主王子傳(三)」 『東亞日報』, 1929. 12. 27.
- 13) 金斗奉, 「(傳説의 濟州道) 星主王子傳(四)」 『東亞日報』, 1929. 12. 28.
- 14) 「濟州島瞥見(4) 女の服裝も柿澁染め - 白衣群とは又異つて内地風」 『大阪毎日新聞 朝鮮版』, 1930. 10. 01.

4) 1892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1918년 동경대학 농학부 농학과를 졸업했다. 후쿠오카는 일본에서도 농법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19세기 후반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곳의 농법을 정리해 전국에 보급할 정도였다. 그는 그 이듬해인 1919년부터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수원지장에서 일하면서 조선에 첫 발을 내딛어, 그곳에서 9년을 일하다가 1928년 황해도 사리원에 있는 서선(西鮮)지장의 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1944년에는 농사시험연구기관을 정비·통합하면서 다시 수원지장으로 돌아와 총무부장이 되어, 1946년 5월까지 그곳에서 나머지 임무를 처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해 7월 심근경색으로 55살에 숨을 거둔다.

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국립문화재연구소, 『구한말·일제강점기 민속문헌 해제』, 2006. 64, 65쪽.

- 14) 崔再雄生, 「濟州島を訪ふ(上)」『大阪毎日新聞 朝鮮版』, 1930. 10. 21.
- 15) 崔再雄生, 「濟州島を訪ふ(下)」『大阪毎日新聞 朝鮮版』, 1930. 10. 22.
- 16) 「最近の濟州島(上)躍進の種種相」『木浦新報』, 1930. 10. 29.
- 17) 「最近の濟州島(下)躍進の種種相」『木浦新報』, 1930. 10. 30.
- 18) 「濟州産馬を軍用駄馬に使ふ 軍部で目下研究中 - 將來は半島の軍馬自給自足」『大阪毎日新聞 朝鮮版』, 1930. 11. 8. - 제주산마를 군마로 사용하기 위한 조선의 군마 자급 자족하기 위한 연구 진행
- 19) 「濟州の水産業(上) - 暖寒二流に恵まれた好漁場本格的開發は今後」『木浦新報』, 1932. 5. 20.
- 산지항 공사 1기공사 :대정원년에서부터 소화4년까지 30여만원 투입. 본격적인 수산업 개발
- 20) 24. 立野角一(濟州島技手), 「乗馬趣味と濟州馬(上)」『木浦新報』, 1932. 5. 28.
- 21) 立野角一(濟州島技手), 「乗馬趣味と濟州馬(下)」『木浦新報』, 1932. 5. 29.
- 22) 「濟州の水産業(中) - 暖寒二流に恵まれた好漁場本格的開發は今後」『木浦新報』, 1932. 6. 5.
- 23) 「濟州の水産業(下) - 暖寒二流に恵まれた好漁場」『木浦新報』, 1932. 6. 15.
- 24) 中田生, 「濟州島を一周して(一) - 出稼ぎ島民の途金なんと年に百萬圓」『木浦新報』, 1934. 4. 3.
- 25) 中田生, 「濟州島を一周して(二) - 眞紅の椿はまねく女ならではの暮れぬ島」『木浦新報』, 1934. 4. 4.
- 26) 中田生, 「濟州島を一周して(三) - 有望な除蟲菊栽培罐詰工場の新施設」『木浦新報』, 1934. 4. 5.
- 27) 中田生, 「濟州島を一周して(四) - 妄想か,夢物語か西歸浦元老の大計」『木浦新報』, 1934. 4. 6.
- 28) 中田生, 「濟州島を一周して(五) - 荒海と闘ふ裸婦群海女の作業を見る」『木浦新報』, 1934. 4. 7.
- 29) 中田生, 「濟州島を一周して(終) - 抜目ない多田院長元氣な池田普校長」『木浦新報』, 1934. 4. 8.
- 30) 「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五)」『木浦新報』, 1934. 11. 24.
- 31)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一)」『木浦新報』, 1935. 3. 2.
- 32)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二)」『木浦新報』, 1935. 3. 28.
- 33)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三)」『木浦新報』, 1935. 4. 12.
- 34)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四)」『木浦新報』, 1935. 4. 20.
- 35)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五)」『木浦新報』, 1935. 4. 28.
- 36)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六)」『木浦新報』, 1935. 5. 26.
- 37)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七)」『木浦新報』, 1935. 6. 1.
- 38) 桺田一二, 「濟州畜産の 地理學的研究 (八)」『木浦新報』, 1935. 6. 10.
- 39)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一)」『釜山日報』, 1937. 6. 25.
- 40)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三)」『釜山日報』, 1937. 6. 26.
- 41)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二)」『釜山日報』, 1937. 6. 26.
- 42)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四)」『釜山日報』, 1937. 6. 30.
- 43)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五)」『釜山日報』, 1937. 7. 1.
- 44)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七)」『釜山日報』, 1937. 7. 10.
- 45) 蘇山生, 「海女と傳説の幢全南の寶庫 (八)」『釜山日報』, 1937. 7. 11.
- 46) 的山子, 「寶庫全南をみる(二) - 濟州島に向ふ 運然!人と家畜」『京城日報』, 1938. 11. 13.

5. 맺음말

일제는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조사 및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들은 1910년 경숙국치를 전후하여 통감부와 총독부에 의해 추진된 토지조사사업 및 총독부 중추원에서 주도한 각종 구관조사(舊慣調査)를 수행하였고, 1919년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저항을 겪고나서는 총독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학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였다. 규범문화뿐만 아니라, 실제문화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행하였다.⁶⁾ 일제는 더 확실한 수탈과 지배를 위해 3.1운동을 가능케한 민중적 결속의 근원을 파헤치는 데도 주목하여 경제적 토대 및 노동관습, 사회조직과 민간신앙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와 같은 공적기관에서는 행정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적인 단위로 민속문화를 조사하거나 일본학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민속문화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기관이나 일본학자에 의한 대표적인 제주지역의 조사·연구자료로는 제주도의 입문서라 할 수 있는 1905년의 『朝鮮之寶庫 濟州島案内』, 1911년 슈우게츠[大野秋月]의 『南鮮寶窟 濟州島』, 1924년 『未開の寶庫 濟州島』(전라남도 제주도청), 도리이 류우조(鳥居龍藏)의 『民族學上 濟州島』, 1929년 조선총독부 축탁 켄조에이스케(善生永助)의 『生活狀態調査(其二)濟州島』, 1930년 부산상업회의소의 『濟州島 經濟』, 1937년 『濟州島開發計劃概要』(전라남도), 1938년 『濟州島水資源調査概報』, 1939년의 『濟州島勢要覽』 등이 있다.

제주 조사 연구자인 中井猛之進은 朝鮮植物을 테마로 한 세계적 식물분류학자로 朝鮮文化에 공헌이 가장 큰 사람이며, 善生永助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자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축탁으로 주로 활용한 일종의 御用學였다. 森爲三은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하였다. 小倉進平은 朝鮮方言을 테마로 한 세계적인 언어학자이다. 原口九萬은 조선총독부 地質調査所技師로 있으면서 '제주도의 지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村山智順은 민속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善生永助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어용학자였다. 今村柄韜은 濟州島司까지 역임한 관리로 朝鮮민속학을 전공하였다. 제주도 연구에서 식물학의 中井猛之進, 사회학의 善生永助, 동식물학의 森爲三, 방언학의 小倉進平 등은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자료조사나 연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하여 선행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내부의 관점이 아닌 외부의 관점, 그것도 조선총독부 통치기관과 일본인 학자에 의한 조사자료라는 점에서 식민지문화관이 일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학술적 조사라 할지라도 치밀한 자료비판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 박현수, 「일제의 침략을 위한 사회·문화 조사활동」, 『역사속의 민중과 민속』, 한국역사민속학회 엮음, 이론과실천, 1990.